

강진군 “강진만 생태공원 갈대밭에 국화 보러오세요”

제6회 춤추는 갈대축제는 취소... 다음달 21일까지 국화 전시 관람 가능

강진군은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6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취소했지만 갈대밭에서 11월 21일까지 국화와 버스킹 공연은 즐길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밝혔다.

군은 강진만 갈대생태공원 입구부터 전망대 앞까지 약 2,500㎡ 면적의 공간에 국화 화분 15,000개와 조형물 15점을 활용해 전시 공간을 마련했으며 생태공원 테크와 자전거 도로에 다양한 모양의 바람개비 4,000개를 설치해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특히, 올해는 경관조명도 설치해 군민들이 생태공원에서 밤 시간의 여유를 보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춤추는 갈대 버스킹 공연은 11월 14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되며, 30일 공연은 강진만 데크길 걷기행사와 함께 10시부터 즐길 수 있다.

이와 더불어 11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살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겸비한 강진만 노을장도 개장해 관내에서 생

산된 농산물과 수공업품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갈대축제는 취소했지만 갈대밭은 찾아오는 관광객과 군민들이 강진의 아름다운 가을을 느낄 수 있도록 국화 전시를 풍성하게 준비했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객들은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방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지류형 해남사랑상품권 디자인 일부 변경한다

앞·뒤 금액 기재·색상 변경

해남군은 지역화폐인 해남사랑상품권의 디자인을 일부 변경했다. 해남군에 운영하는 해남사랑상품권은 지류상품권과 카드상품권 2종으로, 이번 디자인이 변경된 상품권은 지류상품권이다.

기존 상품권의 경우 뒷면이 권중에 상관없이 동일한 색상(연두색)으로 제작되어 앞면을 살펴볼지 않고 계산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새 디자인은 앞뒷면에 금액 기재와 함께 권종별 색상도 달리 제작했다.

이에 따라 각 권종별 금액이 뒷면에도 기재되며, 1000원권 보라색, 3,000원권 파란색, 5,000원권 노란색, 1만원권 청록색이 뒷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선된 상품권은 10월 발행분부터 적용된다.

기동취재본부

특별전 ‘다산초당, 함께 잇-다’ 개최

강진군 다산박물관, 오늘 개막식... 내년 2월 28일까지

강진군 다산박물관 특별전 ‘다산초당, 함께 잇-다’가 10월 22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다산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개최되며 개막식은 오는 26일 10시 30분에 박물관 로비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이 다산초당 입주해 원림으로 가꾸는 이야기, 초당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초당에서 이룬 업적과 그가 떠난 후 폐허가 된 초당을 다시 복원했던 이야기 등 4가지 주제관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전시는 다산초당이 재건을 위해 모금 운동을 주도했던 정다산유적보존회(회장 윤재은)의 결성 65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로 기획됐다. 보존회는 다산초당의 재건을 열망하는 군민들 주축으로 1957년 10

월 26일 발기인 66인이 참여해 결성됐다. 이번 개막식은 결성일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26일에 개막식과 기념행사를 함께 진행한다.

또 이번 특별전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유물은 다산이 가난에 힘들어하는 제자 윤동에게 직접 써준 ‘부환설 증언첩’(‘부’라는 것은 ‘환영’에 불과하다)과 다산초당 재건의 과정이 기록된 ‘정다산유적보존회 사업추진보고서’ 3건 등을 최초로 선보인다.

‘사업추진보고서’는 다산초당 재건 사업을 위해 온 군민들이 모금에 참여한 내용과 군민들이 돌아가며 수많은 목재와 기와들을 산 중턱까지 함께 나르며 다산의 정신을 잇고자 노력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희귀 자료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완도군, 장보고한상(韓商) 명예의 전당 개관

장보고 대사 업적·수상자 성공스토리 전시



완도군은 지난 22일 신우철 완도군수와 김덕룡 장보고글로벌재단 이사장, 장보고한상 어워드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개관식을 가졌다. (사진=완도군 제공).

해상왕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기리고 역대 장보고한상(韓商) 어워드 수상자들의 성공스토리를 전시한 명예의 전당이 문을 열었다.

24일 전남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명예의 전당에서 신우철 완도군수와 김덕룡 장보고글로벌재단 이사

장, 장보고한상 어워드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개관식을 가졌다.

장보고한상 어워드는 재외동포 경제인 가운데 장보고 대사의 개척정신을 계승해 대한민국 경제와 문화 영토 확장,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선정하는 상이다.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은 1, 2층 규모로 완도의 역사와 장보고 대사 업적, 장보고한상 수상자(23명) 소개, 수상자 기증 물품 등이 전시돼 있다.

역대 수상자의 업적을 보여주는 디지털 아카이브와 가상현실(VR) 체험장, 미디어 영상실, 다목적 교육장, 육외 힐링 정원 등도 조성됐다.

이날 개관식에는 정영수 회장을 비롯해 올해 수상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장보고 대사는 한상의 원조이며 750만 재외 동포의 뿌리이다”며 “우리는 장보고 대사의 후예로 공존공영 정신을 계승해 대한민국의 문화, 경제 영토를 넓히고 세계에 장보고 대사의 정신을 알리는 데 앞장선다”는 내용의 ‘청해진 선언문’을 낭독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앞으로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을 찾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장보고 대사와 장한상 수상자들의 도전 정신, 리더십을 배우고 큰 꿈을 키워 미래의 장보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완도=이민혁 기자

진도군, 성매매 방지 피해자 예방 캠페인

진도군에서 성매매와 성폭력 방지를 위한 캠페인이 열렸다.

‘성매매 없는 클린 진도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도군의회, 진도경찰서, 진도군여성단체협의회 등 기관단체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길거리 행진 등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난 22일 실시했다. 또 진도를 조금리 오일시장과 주변 상가, 외국인 노동자와 군민들을 대상으로 성매매·성폭행 방지, 피해자 예방의 중요성과 대처법 등에 대해 홍보했다.

군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과 함께 고위직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지난 14일(목) 실시하기도 했다.

캠페인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따라 축소해 진행했으며,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개최했다.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우리의 관심이 성매매·성폭력 없는 일상을 지킨다”며 “지속적인 예방 홍보 활동을 통해 군민들의 성매매·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군·탐진강수산연구센터, 멸종위기종 보전·생물자원 다양성 확보 토산어종 방류

장흥군 탐진강수산연구센터는 멸종위기종 보전 및 생물자원 다양성 확보를 목적으로 자체 생산한 토산어종을 탐진강을 비롯하여 부산천 및 인근 저수지에 방류했다.

장흥군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탐진강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객저기의 서식 지역 모니터링 및 하천의 생물자원을 조사하는 연구를 실시, 하천 생태계의 기초 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산어종을 자체 생산하여 지난 15일 부산천 일대 및 저수지에 잉어 8만마, 붕어 4만마를 방류 실시한 것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객저기는 최근 하천 정비로 인한 서식처의 훼손으로 개체수가 빠르게 줄어 2012년 멸종위기 Ⅱ급 야생생물로 지정됐으며, 현재는 장흥에서만 출현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의 탐진강 수산연구센터에서 객저기의 자원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복원을 위한 개체 증식 연구를 추진하여 서식지 공급 및 종자 방류 등을 통해 탐진강의 자원량 및 생물 다양성 증대 등의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흥=김도영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전라남도